

# “시민과 함께한 3년, 더 단단한 내일 만들 것”

민선 8기 3년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 광양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시민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정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1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인화 시장은 “3년 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정발 숲 가꾸기 뛰어왔다”며 “이제 반환점을 돌아 남은 과제를 차분히 마무리해 나갈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광양시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성과들을 산업·복지·교육·관광·문화·환경 등 분야별로 소개했다.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로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호남 1위(2년 연속) 및 전국 4위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

## 이차전지·수소 양대 축 고도화 3개 권역 관광개발사업 본격화

력지수 호남 1위 △2024년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12위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종합 1위 △전국 최초 10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등 다수의 외부 평가에서 전국적인 행정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및 ‘제1기 수소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미래 신산업 도시로 향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미래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하고, 3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적극 대응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가



정인화 광양시장.

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370여개 복지정책을 체계화한 ‘생애복지플랫폼 1.0’을 완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창농미디어센터와 광양형 스마트팜 준공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을 유도하고 미래형 농업인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백운산·구봉산·섬진강 3개 권역 관광개발사업이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양시는 남은 1년 그동안 준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이차전지·수소를 양대 축으로 미래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다가오는 수소 시대에 대비해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등으로 청정수소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3개 권역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백운산권에는 토종식물원과 산림복지단지, 천년 동백정원, 동치미 마을 등이 준비되고 있으며, 광양을 일원에 미디어아트공간을 조성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구봉산권에는 체험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해 세계 최장 줄렁다리, 어린이 테마파크,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 관광단지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섬진강권에서는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장이 올해 준공되고, 배알도에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동주의 별빛 정원’과 운동주·정병옥 문학관이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도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혁신 정책이 추진된다. 시는 광양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청년이 깃드는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는 포스코그룹과 연계한 취업 아카데미와 이차전지 특화 교육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을 통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생애복지플랫폼 1.0’을 고도화해 2.0, 3.0 체계로 확장한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센터 확충, AI 학습 및 청년 학자금 이자 지원, 중장년 재도전 지원과 노년층 예방접종·일자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그동안 심은 변화의 씨앗이 지역 곳곳에 뿌리를 내리 시민의 일상에서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정성껏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시민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광양의 미래가 더 단단해지는 길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광양만권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협력

영산강유역환경청·광양시·포스코 등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협력업체 4개사가 환경부 공모사업인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30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광양시 등 관계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이들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인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4개사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총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억2300만원을 출연하고, 환경부와 광양시가 각각 1억7000만원, 중소기업이 850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재정과 환경 관리 여건이 열악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실제 투자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하반기 전남 관광진흥기금 용자 접수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유람선업, 여행업 등이며, 민간 관광사업체의 시설 신축·증축, 개보수, 운영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용자 규모는 총 5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0%가 적용된다. 용자 한도는 업종 및 자금 용도에 따라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까지도.

상환 조건은 자금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며 시설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

치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용자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시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광양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용자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6개 금융기관의 분·지점이다. 시설 자금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요건 및 세부 지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관광과(061-797-371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달 28일 광양시 진월면 차동마을에서 광양제철소 전기재능봉사단이 지역 주민 자택의 전등을 수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지역사회 특별봉사활동

광양제철소가 광양시 진월면 차동마을 일대에서 특별 재능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매년 주기적인 연합봉사활동과 특별 재능봉사활동을 펼치며 포스코 고유의 ‘봉사와 나눔’이라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28일 토건설비섹션 자매마을인 차동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활동을 전개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권향엽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본인들의 특장점을 테마로 삼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양제철소 산하 재능봉사단 13개가 행복나눔에 함께했다.

봉사활동은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생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주거환경 테마로는 농기계 재능봉사단, 세탁 재능봉사단,

전기 재능봉사단, 목공예 재능봉사단이 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 이불빨래, 전기수리와 같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했다.

문화생활을 테마로 한 봉사활동에서는 이미용 재능봉사단, 전래놀이 재능봉사단, 캘리그라피 재능봉사단, 뽕튀기 재능봉사단, 발마사지 재능봉사단, 사진 재능봉사단 등이 미용과 전래놀이, 캘리그라피 체험, 인물사진 촬영,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추가 모집

4일까지 시청 총무과 방문 접수

전라남도 광양시는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의 답례품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 분야

는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관광 △기타 지역서비스 총 6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고향사랑e을 등록 및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의 품목 제안 가능 개수를 최대 5개로 확대하고, 기존 공급업체도 품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일부터 4일까지 광양시청 2층 총무과 고향사랑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광양시청 누리집(https://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